

'100% 전기버스' 영광군,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농어촌버스 25대 교체...올해 하반기 8대 추가 도입 연료비 연 7억 절감 효과...저상버스 확대·탄소 감축

영광군이 농어촌버스의 전면 전기화에 속도를 내며 연말까지 '100% 전기버스 시대'를 예고했다. 고유가 상황 속 비용 절감과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동시에 노린 전략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14일 군에 따르면 현재 전체 농어촌버스 33대 가운데 25대(75%)를 전기버스로 교체 완료했다. 2023년 6대, 2024년 9대,

2025년 10대 등이다.

군은 올해 하반기 중 8대를 추가 도입해 연말까지 전기버스 100% 달성, 친환경 선진도시로서 앞장설 방침이다.

이번 정책은 최근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비 부담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대중교통 운영비용 상승이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으로 직결된

다. 전기버스는 경유버스 대비 연료비와 유지비가 크게 낮아, 버스 1대당 연간 약 300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도입된 25대를 기준으로 연간 약 7억원 수준의 연료비 절감이 기대된다.

여기에 전기버스는 내연기관에 비해 부품 수가 적어 정비 편의성 증진과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책은 최근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비 부담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대중교통 운영비용 상승이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으로 직결된

다. 전기버스는 경유버스 대비 연료비와 유지비가 크게 낮아, 버스 1대당 연간 약 300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도입된 25대를 기준으로 연간 약 7억원 수준의 연료비 절감이 기대된다.

여기에 전기버스는 내연기관에 비해 부품 수가 적어 정비 편의성 증진과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책은 최근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비 부담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대중교통 운영비용 상승이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으로 직결된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K-패스 사업에도 참여해 주민 교통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전기버스 전환은 단순한 교통수단 교체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고유가 시대 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 교통체계를 선도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g98@gwangnam.co.kr



“체조로 치매 예방하세요” 구례군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과 증진화 방안을 위한 ‘치매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치매 환자 및 인지 저하자,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시작해 11월까지 운영되며, 여름방학 기간을 제외한 총 8개월간 주 4회 진행된다.

사진제공=곡성군청

화순, 장애인 의료요양통합돌봄 '첫 방문진료'

고위험군 8가구 우선 지원...민·관 협력체계 구축

화순군은 14일 지역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의료요양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첫 방문진료에 나서며 서비스 제공을 본격화했다.

지난 10일 이뤄진 해당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부족 등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27일까지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등 중증 등록장애인 198명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만성질환 관리와 복합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한 고위험군 8가구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전문적인 방문진료를 위해 보성군

소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기관인 '씨목씨목의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10일 진행된 첫 방문진료에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통합팀이 대상 가정을 찾아 기초 건강 상태 점검과 맞춤형 진료, 심층 상담 등을 실시했다.

군은 이번 방문진료를 시작으로 의료와 돌봄이 연계된 통합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추가적인 복지 수요를 발굴해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보남 통합돌봄과장은 "전소주사를 통해 발굴된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생활 터전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규영 기자 vip3355@gwangnam.co.kr

'이용객 4배 ↑' 나주콜 버스, 2028년까지 달린다

대기시간 단축 등 편의...콜센터 기능 강화 추진

나주시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나주콜 버스'의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운영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한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빛가람동에서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나주콜 버스'가 도입 이후 이용객이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주콜 버스"는 정해진 노선 없이 이용자가 호출하면 실시간으로 최적 경로를

설정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기존 시내버스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교통서비스다.

시는 2023년 전남 최초로 해당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으며 도입 2년 만에 이용객이 330% 증가하며 시민들의 주요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월평균 이용객은 2024년 1만 620명에서 2025년 1만3668명으로 확대,

서비스 정착과 이용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시내버스 노선 대비 대기시간과 이동 불편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가 향상, 유동 인구가 많은 빛가람동에서 안정적인 정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나주콜 버스" 운영을 2028년 4월까지 연장해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콜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차량 배차를 최적화해 대기시간을 줄이는 등 이용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정종도 시민행정교통국장은 "나주콜 버스는 이용자 수요에 맞춘 새로운 교통서비스로 기존 대중교통의 한계를 보완한 사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전남을 대표하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성공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화현 기자 pose007@gwangnam.co.kr

순천, 맞춤형 청년통계 추진 일자리·건강 등 87개 분야

순천시는 청년들의 삶의 질적 수준, 사회 상태의 변화 등을 분석하고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청년통계 작성을 추진한다.

청년통계는 2017년 최초 작성 이후 4회째 맞는 지역 특화 통계로, 고용노동부,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활용해 저비용·고효율 방식으로 작성된다.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순천시 청년(18~45세) 주민등록 인구이며, 작성 항목은 인구·가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등 6개 부문 87개 분야다.

청년통계 작성 결과는 올해 12월 말 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통계는 순천의 미래인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소중한 지표인 만큼 꼼꼼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장성, 청년 자립 성장 거점 '아우름' 본격화

취미부터 취업까지...역량 강화 기회 '활짝'

장성군 청년센터 '아우름'이 4월 개관 이후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나섰다.

14일 군에 따르면 장성을 중심으로 위치한 '아우름'은 장성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소통하며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자립 성장 거점'이다. 지상 2층, 연면적 582㎡ 규모를 지녔으며 1층에는 공유카페와 공유회의실, 2층에는 청년스튜디오, 일자리센터, 다목적홀, 정보화교육장 등이 들어서 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장성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시설 이용과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이달에는 취미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할 예정이다.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지난 8일 '액막이 명태' 만들기(11일) △퍼스널 립밤 만들기(11일) △버터빵 만들기(23일) △글라스아트 플라워 만들기(29일)가 이뤄진다.

취업 확률을 높여줄 △사회 초년생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18일) △재테크 및 재무설계 특강(21일) △인공지능(AI) 활용 자기소개서 작성법(25일) 강의를 열린다.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지역 특화 교육 기회도 마련했다. 군은 잇따른 데이터센터 조성으로 미래 데이터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

대를 모으는 만큼, 오는 10월 '에이아이(AI) 데이터센터 운영 인력 양성'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6월에는 농촌의 지역 자산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교육'도 마련해 청년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한다.

시설 대관도 지원한다. 공유회의실과 다목적실을 1일 최대 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청년센터에 연락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1층 공유카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심우정 부군수는 "청년센터 '아우름'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청년 수요를 반영한 '체감형 청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청년이 성장하는 장성, 희망이 현실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강진, 드론 활용 봄철 산불 감시 대응 강화

산림재난·드론감시단 운영

강진군이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14일 군에 따르면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 15일~5월 15일) 동안 '산림재난드론'과 '산불드론감시단'을 운영해 산불 취약지역 감시를 강화하고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최근 강풍 발생이 잦아지면서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입산자 심화와 불법 소각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군은 드론을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산불드론감시단은 드론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인력 6명으로 구성되며,

2인 1조로 운영된다. 감시단은 산불 취약지역과 주요 등산로, 산림 연결 농경지 등을 중심으로 주 2회 정기 순찰을 실시하고, 오후 시간대 집중 감시를 통해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특히 건조특보 발효 시나 산불위험 등급이 '높음' 이상으로 상황될 경우 드론 감시를 강화하고, 실시간 영상 확인을 통해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보고·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또한 눈·발두령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와 계도를 병행해 불법 소각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예방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산불 발생 시에는 드론을 활용해 초기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산불 위치와 확산 방향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산불재난대응단 및 읍면 진화대와의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

해남, 골목형상점가 2개소 신규지정

해남군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명지누리 골목형상점가'와 '중앙1로 천변교' 일대 2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새롭게 지정된 곳은 명지누리 골목형상점가(해남읍 남부순환로 9-4일원) 36개 점포와 중앙1로 천변교 골목형상점가(해남읍 중앙1로 100일원) 20개 점포이다. 해당 구역에는 일반음식점, 의류점, 미용실, 카페, 마트 등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업종이 밀집해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 구성 등 법적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군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은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은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 및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군은 앞으로도 지정 구역별 맞춤형 컨설팅과 마케팅지원을 통해 상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